

韓國과 台灣의 動向과 展望

円高의 정착과 일본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NICS의 2마리 龍-한국과 대만의 진출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富國노선인 한국과 중소기업 위주의 富民노선인 대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美·日과 대만·한국과의 수평적 분업관계의 진전 또한 괄목할 만한 것이며 국제적 네트워크화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공시장의 동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美·日과 대만·한국과의 관계에서 중공의 참여로 인한 충격은 적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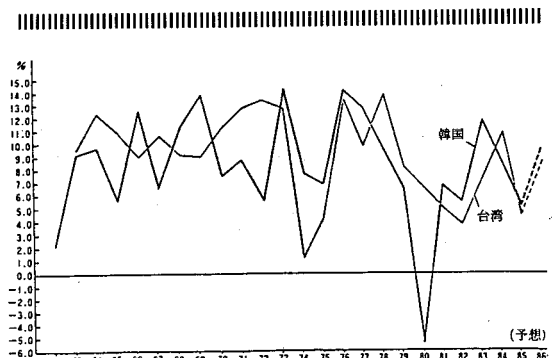
重化學工業분야에서 두드러진 發展을 보이고 있는 巨木點在型의 韓國과 中小企業을 중심으로한 小木群生型의 台灣. 이들 아시아 NICS의 「2마리의 龍」은 장래의 域內分業을 위해 그들이 가진 특색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注目되고 있다.

엔高가 정착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최근 일본의 일간지에서는 매일같이 「○○工業, 韓國과 提携」 「○○社, 台灣에서 部品調達」이라는 글이 실리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들 두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시장에서 纖維, 신발, 石油化學, 鐵鋼, 電子 등과 같은 분야에서 각축전을 벌여 왔다. 이들 두나라의 工業化 프로세스는 輸出指向型 또는 최근에는 「複線型工業發展」이라는 많은 항목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들의 初期條件의 차이는 오늘날 쌍방의 산업조직을 크게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서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장래의 産業選擇의 내용도 産業組織의 차이와 無關하다고 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韓國, 台灣의 開發政策에서 차

그림 1 韓國·台灣의 經濟成長率 推移 (62~85年)



資料：韓國：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 '86」
台灣：JETRO調查

이점에 스포트를 비쳐 産業組織을 중심으로 NI CS중 兩雄의 方向性을 檢討해 본다.

1. 富國路線인 韓國, 富民路線인 台灣

가. 輸入代替期: 基礎 다지기에 이긴 台灣
 韓國과 台灣이 經濟計劃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工業化를 출범시킨 것은 한국이 1962년, 台灣이 1953년이며, 양국사이에는 이 時点에서 약 10년의 격차가 있다. 1945년에 해방된 이래 두 나라 모두 1961년 정도까지 輸入代替期가 되어 纖維, 신발 등 非耐久消費財를 중심으로 高関稅와 數量制限이라는 保護下에서 公업화가 疎忽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台灣은 한국에 대해 相對

表 1 韓國·台灣의 主要 經濟指標 比較

	62年		75年		85年	
	韓國	台灣	韓國	台灣	韓國	台灣
人口(萬人)	2,651	1,151	3,528	1,615	4,106	1,926
GNP(經常, 百萬弗)	2,315	1,795	20,852	14,194	81,237	54,869
1人當 GNP(弗)	87	151	591	956	2,032	3,142
總資本形成/GDP(%)	10.6	17.9	25.5	30.6	30.5	18.2
産業構造(%)						
農林漁業	36.6	29.2	24.7	14.9	13.8	7.0
鎡工業	16.2	25.7	27.5	39.2	30.6	44.9
기타	47.1	45.1	47.8	45.9	55.0	51.2
工業化率(%)	14.6	19.4	23.8	30.6	26.9	36.7
國民貯蓄率(%)	3.3	12.4	19.1	26.9	28.4	32.1
租稅負擔率(%)	10.6	14.0	15.4	17.7	18.7	16.9
都売物價上昇率(%)	8.8	3.1	26.5	△ 5.1	0.9	△ 2.6
輸出(FOB, 億弗)	0.5	2.2	50.8	53.1	302.8	307.2
輸入(CIF, 億弗)	4.2	3.0	72.7	59.5	311.4	201.0
輸出에 차지하는 工業製品의 畵어(%)	27.0	50.5	88.3	83.6	95.4	93.8
貿易收支(國際收支베이스, 億弗)	△ 3.4	△ 1.2	△ 16.7	△ 2.5	△ 0.3	113.7
年末外貨保有高(100萬弗)	1.7		15.5		77.5	225.6
外國人投資受容(億弗)	0.6	3.5	69.2	70.9	250.3	660.7
農家所得/都市勤勞者所得(%)	80.6	95.0	101.6	92.3	94.9	81.0
對달러환율(원, 元)	130.00	40.00	484.00	38.05	890.20	39.85
醫師 1人當人口數(人)	2,717	1,749	1,801	1,492	1,230	1,130
公務員年金對象者數(1,000人)	251	218	490	367	694	481
道路舖道率(%)	14.9	18.9	44.0	62.2	73.7	83.6
文化·娯樂費/家計消費支出(%)	3.7	1.2	5.2	6.4	9.3	9.0

註: 農家所得/都市勤勞者所得(%)의 項단 66年.

資料: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各年,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및 主要經濟指標, 各年, 韓國銀行

의으로 좋은 조건으로 경제계획하에서 1970년대의 輸出指向型 工業化를 지탱하는 기초를 다지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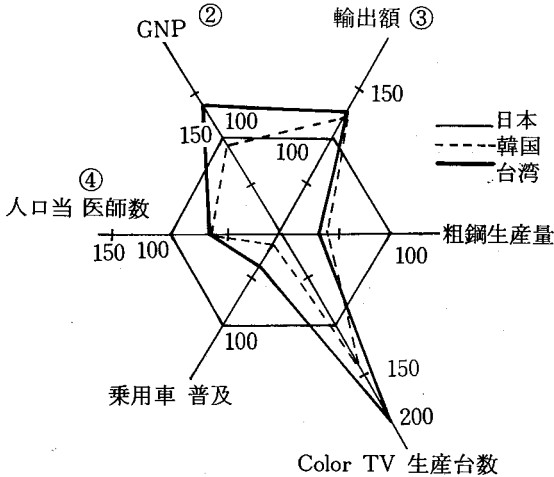
韓國에서는 1967년에 商業貸出金利가 26%에 達했으나 輸出企業은 겨우 6%의 금리로 必要資金의 80%를 조달할 수가 있었다. 「돈을 빌리는 것이 돈을 낚는다」는 상태가 일어난 것이다.

輸出金融의 한도도 韓國銀行의 貸出總額의 50% 수준에서 추이하야 대단히 큰 것이었다. 이에 대해 台灣에서는 金利差는 평균해서 한자리대에 그치고 있었다. 中央銀行의 貸出 한도도 10%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相對的으로 적었다.

더우기 한국에서는 1975년 綜合貿易商社制度가 發足됐다. 종합상사는 수출실적에 의거하여 選定되었으나 수출금융을 수출목표 한도내에서

인출할 수 있었고 거의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게 한데다 정부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게되어 이의 메리트가 대단히 컸다. 그리하여 재벌기업은 수출금융획득에 혈안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얻어낸 풍부한 자금을 배경으로 잇달아 企業買収와 規模擴大, 新規分野로의 참가를 꾀했다.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최종제품 指向이 강화되고, 치열한 輸出경쟁에 이기기 위해 모든 산업을 각 재벌이 One Set로 인수, 과잉 투자를 초래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적극적인 수출진흥책에서 비롯된 부작용이 나왔다.

그림 2 15年前 日本과 比較한 韓國, 台灣의 經濟力 ①



註 ① 1985년의 韓國, 台灣의 1人당生産, 保有量등 1971年の 日本을 100으로 한다.

② 1984年

③ 輸出總額의 比較

④ 日本 1969年, 韓國 1983年, 台灣 1984年

한국이 輸出金融을 큰 incentive로 삼는데 대해 대만은 民生重視 아래에서 內需充足에 비중을 두었다. 수출진흥은 投資條例에 따라 생산·투자에 대해 課稅面에서 優待하는 정책을 채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早期(1965년)에 高雄輸出加工區가 창설되어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꾀했다. (한국의 馬山輸出自由地域의 창설은 1973년). 많은 外資系 多国籍企業이 輸出上位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만의 中小輸出企業도 외국이나 華僑의 貿易商社 Network를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中小貿易商社의 합병과 외자와

의 合作에 의한 商社育成도 시도됐으나 종합상사의 탄생은 어려웠다.

나. 重化學工業化: 均衡을 꾀한 台灣

70년대에 한층 양국이 分化된 것은 重化學工業政策의 속도와 두번에 걸친 石油波動이다.

한국은 제 3차 5개년계획(73년~77년)의 실시를 통해, 대만은 「10大項目建設計劃」(73년~77년)을 통해 각각 重化學工業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만의 「10大建設計劃」에서는 中國鋼鐵, 中國造船, 中國石油 등 3大 公營企業을 발족시켜 鐵鋼, 造船, 石油化學部門의 육성을 꾀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프로젝트는 모두 高速道路, 鐵道, 空港, 港灣 등과 같은 社會資本으로 바뀌었다.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한 투자는 연간 粗鋼生産 150만톤 수준의 中國鋼鐵 제 1기공사를 포함하여 약 432억 원으로 전체의 19.5%에 지나지 않았다.

이 계획이 끝난 78년부터 「12大項目建設計劃」(84년까지)이 착수됐으나 이것도 6項目까지가 道路, 鐵道로서 産業關聯은 中國鋼鐵의 제 2기공사(연간 粗鋼生産 325만톤으로 인상) 뿐이었다. 이 계획에서는 농업기반 재정비, 신도시개발계획 등 농업진흥과 사회복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重化學工業은 급진전했다. 1973년 이후는 60년대에 제정된 輸出 incentive가 차례로 각 重化學工業部門을 장려하는 쪽으로 바뀌어갔다.

輸出優待金利, 外貨貸付金은 인상되고 關稅免除制度도 개정됐다. 國家投資基金(NIF) 등을 통해 重化學工業部門으로 優待金利에 의한 장기貸出이 시작됐다. 이와 같은 間接金融만이 아니라 石油化學, 造船, 機械, 電子, 鐵鋼, 非鐵金屬, 化學 등 주요 「重點育成産業」에 대해서는 工業團地 등 infrastructure 整備라든지 出資金이라는 형태로 직접투자도 실시되어 70~80년까지 8,627억원이 투자되었다. 동시에 重點産業에 참가한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면제와 같은 稅制優待策 등 강력한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다. 연간 粗鋼生産 960만톤 수준의 제 1浦項

製鐵所, 玉浦造船所, 麗水石油工業團地 등 대형 투자가 줄을 이었다.

다. 石油波動: 対応에서 나타난 대만의 「柔」와 한국의 「剛」

重化学工業이 이제 막 일어서려는 차에 韓國과 台灣은 두번에 걸쳐 石油波動을 겪었다. 이 試練에 대해 양국의 대응이 서로 달랐으며 이 대응은 그후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만의 경우 重化学工業 프로젝트 自体가 적었으며 자금도 「12大項目建設」에서 볼 수 있듯이 68.5%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등 韓國에 비해 자금면에서 거뜰히 대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計劃에 대해 큰 軌道修正을 했고 原子力 發電을 충실히 하는 등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 동시에 일찌감치 노동집약부문·에너지-多消費部門에서 기술집약형·에너지절약형 산업으로의 이행을 크게 의식하게 되었다. 농업기반 재정비와 사회복지가 12大프로젝트에 浮上한 것도 軌道修正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台灣은 석유 파동에 냉정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台灣의 柔軟路線과는 对照的으로 한국은 계획을 거의 完遂, 일부 프로젝트는 제 3차 계획기간중에 조기 달성했다. 70년대에 고성장한 한국과 안정노선을 선택한 대만의 또하나의 차이는 석유파동때의 물가정책에서도 볼 수가 있다.

제 1차 石油波動이 일어난 1973년 대만에서는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일련의 긴축조치를 취했다. 연말의 석유파동에서 해가 바뀐 1974년 預金·貸出金利를 일거에 3~4% 인상, 石油製品 價格을 70%이상이나 끌어올리는 등 과감한 經濟安全計劃을 취했다. 原油의 가격상승분을 스트레이트로 각종 요금에도 반영하는 등 무리한 물가억제책을 취하지 않았다. 1974년의 도매물가 상승률은 40.5%가 됐으나 市場 메카니즘에 맡기는 방법은 주효하여 다음해에는 마이너스 5%나 진정됐다.

그러나 한국은 석유파동직후 預金金利를 약간 인상했을 뿐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企業은 設備投資를 続行했다. 한편 1974년의 도매물가 상승률은 40%나 됐는데도 정부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파급을 우려, 정부

부문에서의 흡수를 꾀했다. 그러나 이의 코스트가 오히려 커져 이후의 인플레이션 體質定着의 발단이 됐다. 석유파동후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해진 1975년의 원화 切下가 영향을 주었고 海外建設收入好調로 外貨가 증가, 過剩流動性의 압력이 증대하는 등의 인플레이션 요인도 가해졌다. 重化学工業化 路線의 완전 철수라는 선택은 파잉투자를 수반, 消費性向이 강한 國民性은 수출우선의 주름살이 국내시장으로 향해서 공급이 수요를 밀도는 凶式 속에서 인플레이션 期待를 높여 갔다.

石油파동은 韓國의 積極性에 큰 타격을 주었고 한국의 시행착오를 한층 악화시켰다. 고집스러우리만큼 經濟規模 拡大를 추구한 1970년대의 韓國의 빛은 國際收支赤字 惡化, 對外債務의 팽창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1980년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대만이 1971년이후 1974년, 1975년을 제외하고 貿易收支黑字를 배경으로 外貨準備를 增強해 나간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2. 先進國 突入의 自信

韓國의 經濟開發思想은 항상 經濟發展은 安全保障이라는 내셔널리즘이었다. 먼저 經濟를 향상시키고 분배는 그후에 한다는 「富國路線」이 지금까지 기술해온 경제정책의 기준이었다.

확실히 1970년대의 급속한 重化学工業化에 따라 産業高度化는 두드러진 진전을 보았다. 重化学工業部門의 全工業 產出高에 차지하는 비율은 1967년의 37.7%에서 79년에는 56.7%로, 雇傭比率도 39.4%에서 49.4%로 증가했다. 輸出品 構成에서 重化学工業品과 輕工業品의 畵어가 역전한 것은 1982년의 일이었으나 그 후에도 成長 輸出商品은 컬러TV, 電子렌지, VTR, 그리고 乘用車도 눈부신 속도로 高附加價值 제품으로 바뀌어 갔다. 아 물론 輸出競爭力이 있는 商品을 차례로 등장시키는 속도는 重化学工業化路線을 계속하는 것이 낡은 対応力의 證左라고 할 수가 있다.

급진개하는 산업고도화가 1982년이후에 실시

하기 시작한 外資法 緩和와 더불어 外資에 대한 參加機會를 넓혔고 美日欧 등 先進諸國과의 폭넓은 기술, 자본교류가 시작된 것도 한국으로서는 밝은 側面이라 할 수 있다.

NICS産業의 現狀을 타개하는 길은 産業高度化 이의는 없으나 韓國의 지금까지의 經驗으로 봐서 外資와의 제휴는 항상 民族企業의 發展에 큰 效果를 발휘해 왔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 빅스리와외의 제휴를 강화한 乘用車産業은 下部産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기대된다. 자동차 産業육성이라는 impact는 中小企業育成의 本格化, 産業間 不均衡 是正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보아 넘길 수가 없다.

가. 産業高度化：台湾의 選擇

韓國에 대해 台湾의 産業高度化 속도는 말할 것도없이 完만한 것이었다.

台湾에서는 農地改革의 進展과 더불어 시멘트·製紙 등 民營化가 이루어져 섬유 등과 같이 市場原理에서 公營企業이 철수한 경우도 있었다. 投資獎勵策의 制定, 改定 등에 따라 民間企業의 育成에도 노력했다.

그러나, 基幹産業을 公營企業이 담당한다는 思想은 重化學工業化에 있어서도 繼承되어 신중한 産業정책이 전개됐다.

公營企業은 1982年末 현재 105社뿐으로 대만 전체 企業數의 약10%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1984년도의 總資産을 보면 민간이 대형기업 96社로 7,89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公營企業의 工業生産에 차지하는 舍어(附加價值 베이스)는 1984년에 12.4%이나 雇傭面에서는 29만 명으로 민간기업의 최대회사(大同公司=2만 2,000명)과 비교해서 1社當 雇傭人員은 대단히 크다. 84년의 売上高 ranking의 上位 10社 중 민간기업은 南亞塑膠工業을 필두로 겨우 半數가 下位에 얼굴을 내밀었을 뿐이다.

대만의 産業高度化 속도는 이와 같은 産業組織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거대한 公營企業이 원료, 중간재부문을 담당, 한국과 같이 민간이 이 부문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은 민간이 제품부문, 그것도 소규모의 輕工業品 생산에 많이 남겨진 결과가 됐다. 중소규모의 民間企業에는 資金力이라는 면에서도 研究開發費의

表 3 韓國, 台湾의 企業規模別로 본 附加價值, 雇傭, 企業數의 比率

(單位：%)

韓 国	企業規模 (人)	附 加 價 值		雇 傭 數		企 業 數	
		1967	1979	1967	1979	1967	1979
	5~ 9	7.21	1.92	14.22	3.58	58.47	37.45
	10~ 19	7.21	2.59	11.39	4.45	21.94	21.54
	20~ 49	9.09	6.19	13.10	9.68	11.81	21.51
	50~ 99	8.41	7.41	10.31	9.68	3.93	8.10
	100~199	8.43	9.98	10.40	12.10	2.01	5.75
	200~499	20.48	16.91	13.77	17.06	1.21	3.77
	500以上	39.17	54.99	26.81	43.44	0.63	1.88
	合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台 湾		1966	1976	1966	1976	1966	1976
	5~ 9	4.71	3.47	9.21	6.24	53.76	44.17
	10~ 19	4.13	3.63	8.88	6.54	22.30	22.43
	20~ 49	7.28	7.33	13.21	11.66	14.82	17.52
	50~ 99	5.53	7.48	9.04	11.47	4.51	7.63
	100~499	18.18	26.63	23.45	31.50	3.83	7.13
	500以上	60.10	51.46	36.21	32.59	0.78	1.12
	合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資料：[韓國] Report on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1967 and 1979, Economic Planning Board.

[台湾] The Report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Censuses of Taiwan.

지출과 신규분야 참가에 대한 野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 당연히 원료, 중간재 부문의 公營企業과 민간기업 사이에 系別關係를 갖게 하는 것은 성격

상 어렵게 된다. 복잡한 組立産業에 대한 産業間 불균형이라는 문제는 한국과는 다른 뜻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産業高度化의 취약점의 하나라 할 수 있다.

表 4 産出, 投入, 生産性的 成長率 (1967~1979)

	韓 国				台 湾			
	産出	労働投入	資本投入	綜合生産性	産出	労働投入	資本投入	綜合生産性
1. 食品, 飲料, 담배	16.4	6.5	18.8	0	10.3	-2.6	7.0	5.3
2. 纖維, 衣服, 革製品	25.2	9.9	19.5	7.4	21.6	6.2	15.7	9.8
3. 나무 및 同製品, 家具	17.4	7.6	16.9	2.1	6.6	4.8	4.3	2.1
4. 종이 및 同製品, 印刷·出版	18.5	7.8	15.1	4.9	14.3	3.9	10.8	6.0
5. 化学品, 石油, 石炭· 고무· 플라스틱製品	23.5	11.2	17.7	6.3	19.0	7.0	19.1	2.1
6. 非金屬鉱物製品 (石油·石炭製品을 除外)	19.6	6.7	16.2	5.6	11.4	2.6	13.0	0.9
7. 基礎金屬	30.2	10.8	36.9	-1.5	16.8	6.8	23.0	-0.9
8. 建築用鋼材, 機械, 設備	34.7	15.3	26.5	9.3	25.8	11.6	19.5	7.9
9. 기타工業	25.6	9.7	19.0	7.4	28.1	13.2	13.8	13.0
10. 工業部門 全体	24.0	10.4	20.9	5.0	17.7	6.3	15.5	4.8

資料 : [韓國] Report on Mining and Manufacturing Census and Surver, 1967 to 1978, Economic Planning Board.
[台灣] Report on Industrial and Commercial Surveys, 1968 to 1978.

이외에 처음부터 産業高度化의 一翼을 담당해야 할 公營企業은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效率이 問題視되어 그 負債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中国造船이 1985년 1500명의 종업원을 解雇한 외에 中台化工公司, 中国銘葉(알루미늄) 公司와 같이 赤字가 恒常化하여 操業이 停止된 경우도 나와 있다. 公營에 의한 工業化 자체에 의문이 던져진 가운데 産業高度化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할 수가 있다.

이리하여 台湾의 輸出構造는 1985년 현재도 輕工業品이 57.4%를 차지하여 重化学 工業品의 舍어를 웃돌고 있다. VTR, VLSI(大規模集積回路), 乘用車 등의 輸出에서는 모두 한국에 뒤졌다. 量産型으로서 더우기 後發 메이커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半導體 産業에 대해서도 民間企業이 消極的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産業의 쌀」로 알려진 國産化를 위해 交通部가 外資필립社와의 合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나. 經濟體質 : 추구되는 韓國産業의 格差는正

한편 韓國에는 급속한 産業高度化의 부작용으로서 지적되는 特定業種에 대한 過剩投資와 格差는正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움도 많다.

첫째로 재벌과 중소기업 정책의 관제이다. 輸出과 重化学工業部門에 重点的으로 信用이 供與되어 振興策을 취했으나 実績主義의 배분은 결국 大企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가난한 사람, 물자, 돈의 經營資源을 집중적으로 配分하여 外貨獲得力이 있는 企業育成을 꾀하는 方針下에서는 中小企業의 興隆은 어려웠다. 1967년과 1979년을 비교하면(表 3) 韓國에서 從業員 200명 이하의 中小企業의 比重은 企業數, 雇傭數, 附加價值 등 어느모로 봐서도 低下하여 大企業으로의 集中을 볼 수가 있다. 10大 財閥의 總資産이 國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構圖는 80년대에 들어 오히려 현실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中小企業育成이 組立産業의 高度化에 필요하다는 것은 中小企業育成施策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對外債務를 안고

있는 만큼 輸出은 당분간 높은 신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外貨獲得力이 큰 재벌을 억지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기에 財閥과 中小企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 産業選擇의 문제를 들 수가 있다. 長期間에 걸친 incentive는 기업을 항상 신규참가 분야로 내모는 패턴을 만들었다. 이 결과 재벌이 원료부문에서 제품부문에 이르기 까지 모든 産業을 한류음으로 Group내에 갖는다는 體質이 만들어져 특히 技術이나 關聯産業을 갖지 않아서 新産業에 손대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에 하이테크産業의 육성을 꾀하여 R&D 比率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그 育成分野는 總花的이며 美日의 틈바구니를 누벼서 나간다는 교묘함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웠다. 현재의 산업정책이 「民活」色을 짙게 띄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은 戰略産業에 그쳐 既存産業의 競爭力強化는 민간에게 맡기는 戰略이라고 볼 수 있으나 民間側에도 하이테크産業을 운영하면서 既存産業의 brush up을 꾀하는 感覺이 충분히 정착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세째는 對日依存으로부터의 脫皮라는 문제가 있다. 輸出用 原資材와 中間財는 한국·대만이 모두 지금까지의 制度 및 産業規模下에서는 隣接 메리트를 살린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에 의존하는 쪽이 대체로 싸게 먹힌 것이다. 그러나 産業高度化의 속도가 빠를수록 對日貿易赤字가 급속히 擴大된다는 딜레마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

대만은 産業高度化를 완만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딜레마를 相對的으로 억제했다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表 4는 韓國, 台灣의 1967~1979년의 工業部門의 生産性 變化를 비교한 것인데 同期間, 韓國의 生産性 成長率은 연평균 5.0% 대만에서는 4.8%였다. 그러나 產出成長率은 韓國 24.0%에 대해 台灣 17.7%로 되어 있다. 대만의 產出成長에 차지하는 生産性 成長의 寄与度는 相對的으로 크며 한국의 경우는 「効率性의 개선보다도 오히려 投入增加에 의해」 성장의 초대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收益體質의 격차는 企業經營에도 엇볼 수가 있다.

表 5는 한국·대만의 제조업에 대해 그 財務構造를 집계한 것이다. 經營에 대한 思考方式에 차이가 있고, 한국의 경우 돈의 흐름은 Group 單位로 포착하지 않는 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自己資本比率은 韓國의 경우 1984년에 22.6%로 台灣의 38.7%와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借入金 의존도를 봐도 한국의 41.5%는 대만의 37.6%에 대해 상당히 높아졌다.

表 5 製造業財務構造의 國際比較

(單位: 總資産에 대한 構成比: %)

項目別	年度別			
	韓國 1984	美國 1984	日本 1984	台灣 1983
流動資産	49.9	41.3	63.8	45.4
現金·預金	6.2	2.7	13.3	5.1
売出債權	18.0	15.0	24.9	15.7
固定資産 ¹⁾	49.0	58.7	36.1	43.8
流動負債	50.7	26.3	54.0	43.7
買入債務	13.5	8.7	24.1	...
短期借入金	20.8	5.0	18.1	26.6
固定負債	26.6	26.1	20.6	11.7
自己資本	22.6	47.6	25.4	38.7
流動比率	98.4	157.0	118.1	103.9
固定比率	217.2	123.4	142.3	113.1
負債比率	342.7	110.1	293.9	158.5
借入金依存度	41.5	22.6	34.4	37.6

註: 1) 投資와 기타 資産을 포함
資料: 韓國銀行, 外JETRO 조사

對日貿易赤字는 쌍방의 體質의 差를 端的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韓國에서는 民間重視의 經濟政策으로의 轉換이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급속한 重化學工業化에 의한 疲弊한 財閥그룹에도 일부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강제적인 對日依存 脫却은 한층 문제를 심각화시키는 側面을 가지고 있다.

다. 民生의 向上: 課題를 남기는 韓國

한국에 비교했을 경우, 대만의 經濟開發은 「民生優先」이 크게 뒷받침되고 있다. 經濟計劃을 통하여 農村을 포함한 infrastruc-tion 整備가 항상 指向되는 한편, 教育은 물론, 醫療·保險, 福祉, 環境整備 등에 대한 배려는 일찍부터 이루어

어저 重化学工業化를 추진한 시기에도 균형이 잡혔다.

대만은 勞災補償, 健康保險, 年金을 합친 「勞工保險」을 1950년에 도입, 1955년부터는 從業員 5명 이상의 사업소, 어민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무화되었다. 福祉面에서는 全國民 健康保險計劃을 현재 策定·準備中에 있다. 公務員 年金의 適用對象人員은 1983년에 400만명, 전체의 21.3%로 한국에 비해 높다.

家計消費支出에 차지하는 文化·娛樂費의 웨어, 道路舖道率과 下水道 普及率 등 社会指標에서 한결같이 台湾은 韓國보다 한발 앞선 상태에 있다. (表 1 참조)

表 6 韓國·台湾의 主要 所得分配 比較

	韓國	台灣	日本	美国
	1982	1982	1972	1972
第 1 五分位	6.9	8.8	8.7	4.5
2	12.0	13.8	13.5	10.7
3	16.2	17.6	17.4	17.3
4	21.9	22.8	22.2	24.7
5	43.0	37.0	38.2	42.8
合計	100.0	100.0	100.0	100.0
上位層 / (%)	28.1	24.7	27.2	26.6
十分位分配率 (%)	0.44	0.61	0.58	0.36

註 : 十分位分配率은 $\frac{\text{下位層}40\%}{\text{上位層}20\%}$ 을 나타냄

資料 : 宋丙洛, 「韓國經濟論」, 1984年, 외 JETRO 조사

대만에서 매년 실시한 生活意識調查(1984년)를 보면 家庭收入에 대한 滿足度는 「普通」을 비롯하여 「대단히 滿足」에 이르기까지의 3 단계는 40.5%로 되어 있다. 실제로 대만의 所得分配率을 보면 1982년에 10分位 分配率은 0.61로 한국을 상당히 능가, 1972년 당시의 일본까지도 능가하고 있다. (表 6 참조) 收入面의 滿足度는 公平感에서도 韓國보다 강하다고 추측되고 있다.

韓國이 民生의 向上을 經濟計劃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제 5차 5개년계획(1982~1986년)부터이다. 올림픽을 開催한다는 특수사정이 社会資本 充實化를 촉진시키기도 했으나 특히 지방과 수도권과의 格差 是正을 꾀해 왔다. 1960~1970년대에 급속한 人口流入이 증가, 現在 서울

市의 人口는 全人口의 약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肥大해졌다. 首都圈의 道路舖裝率 41.8%에 대해 地方에서는 23.8%(1984년)를 보이고 있는 등 infrastruction面, 그리고 컬러TV의 보급률(1984년)이 都市의 75.5%에 대해 地方이 20.3%를 보이고 있는 등의 文化生活面에서도 격차가 일어났다.

새마을운동에 의해 70년대 전반에 生活水準이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並行해서 採用된 農民의 意欲고취를 위한 高米價政策은 食糧管理制度의 赤字를 이유로 1970년대 중반부터 수정되었다. 이 결과 農民의 소득을 1976년 이후 둔화하고 있으며 都市家計所得과의 격차는 다시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韓國도 1인당 국민소득은 1984년에는 2,000弗을 넘어서서 高級衣類와 VTR과 같은 消費水準이 증가한 것은 소득분배가 그런 대로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輸出 優先을 위해 생긴 국내시장의 수급불균형도 시정방향에 있으며 소비자의 욕구가 제품 향상의 계기가 된다는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民生面의 向上은 정부가 본격 손을 댈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진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 投資意欲 : 台湾에서 보는 풍요속의 그림자 民生面에서 先行하는 대만의 고민은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貯蓄性向과 投資의 부진에 있다.

固定投資는 80년 이후 名目上에서나 GDP比에서나 일관해서 떨어지고 있다. 1980년의 固定資本形成(名目)은 5,039億元으로 GDP의 34.3%에 相当했다. 1985년에는 4,289億元으로, GDP로의 웨어는 겨우 18.2%로 떨어졌다.

台湾은 産業高度化를 피하기 위해, 1982년에 전자, 기계공업 등을 「策略(戰略)性工業」에 指定했다. 기업이익의 内部留保는 倍增되어 台湾 産 機械의 구매에 대한 投資稅 控除 適用, 投資材 導入에 대한 長期低利 指定 등 갖가지 incentive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産業이 12억弗(1985년)의 輸出産業으로 成長하는 등 그런 대로의 성과도 있었으나 「策略性工業」의 생산은 1984년에도 전년비 15.7% 증가에 그쳤다. 이 컴퓨터産業도 80년대에는 美国系 多国籍企業의 진

출이 잇달아 外国人 投資에 의한 바가 컸다.

全国工業總會는 1985년에 投資意欲 低下에 대해 12大 要因을 지적했다. 주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元貨의 高價感: 1984년 1월~1985년 2월 말까지 달러에 대해 일본 엔화는 12%, 한국 원화는 5.2% 하락한데 대해 元貨는 오히려 2.4% 상승하여 輸出감소를 초래했다.

② 高金利: 台湾의 實質金利는 85년 7월 현재 일본의 3%에 대해 약 8%에 달하고 있다.

③ 勞働基準法의 실시로 코스트 상승

④ 金融機關의 保守的인 貸出 姿勢

⑤ 産業構造高度化로의 轉換期

⑥ 模倣이 활개치고 있는데다 過當競爭

⑦ 세계적인 保護主義化와 經濟의 slow down 이 가운데 ②에 대해서는 85년중에 여섯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①에 대해서는 1년간에 30% 이상이나 切下되어 수출경쟁력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달러에 대해서는 미국의 切下 圧力이 거세어서 이미 7월이후 환율은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두가지 요인을 제외하면 다른 요인은 모두 중소기업 중심의 産業組織이라는 대만의 특색과 결부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勞働基準法의 실시는 미국의 通商法案이 일정한 노동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을 不公正으로 보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취해진 움직임이다. 그러나 원래 한국에 비해 노동공급이 부족기미인 台湾으로서는 임금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코스트가 되었다.

또 模倣이 활개치고 있는 것은 著作權法의 整備決定(1985年)에 따라 앞으로는 홍콩의 例와 같이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模倣에 의한 技術力 育成이라는 길은 이제부터는 허용되지 않게 된다.

한국의 재벌이 풍부한 자금을 투입하여 R&D 投資를 급속히 擴大(韓國의 R&D費의 對 GNP 比는 82년의 1.09%에서 86년에는 2.0%를 예정) 잇달아 하이테크 分野로 참가했는데 대해 대만 현지기업의 R&D 투자는 완만(대만의 R&D 費는 82년의 0.3%에서 86년에는 1.3%를 예정)

하게 진행됐다. 하이테크산업의 기술자에 대해 보면 한국에서는 財閥企業이 경쟁적으로 해외유학 技術者를 스카우트, 연구환경을 제공했다. 대만의 産業組織은 이러한 면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

1960~70년대를 통해 기술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한 대만에서는 企業收益도 압박되는 일이 없고 한국이 80년의 중화학공업 조정으로 남긴 것과 같은 과잉투자 정리의 코스트도 적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輕工業品에서 충분한 收益을 올려 생활수준도 착실히 향상된 가운데 投資期間도 길고 리스크도 큰 大型投資로의 의욕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重化學工業調整에서 승용차를 2천로 줄인 한국에 비해 대만의 승용차 메이커는 규모의 크기로는 몇배나 뒤지는 7社가 각축전을 벌였고 수출산업화에 뒤진 것은 象徵的이라 할 수가 있다.

마. 變化하는 産業政策과 産業選擇

産業組織의 차이에서 현재의 産業政策에는 여러가지 反省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中小企業 育成을 위해 財閥에 대한 信用供與抑制, 中小企業의 系列整理, 벤처비지니스의 육성 등 갖가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 한편 대만에서는 外資를 중심으로한 자동차산업의 본격 육성, 대형 종합상사의 육성 등이 시도되고 있다. 85년에는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펴기 위해 公營企業의 民營化 등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巨木點在型」 산업조직을 만들어낸 한국과 「小木群生型」의 민간산업조직을 형성한 대만에서 각각 이의 잘못된 곳을 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래의 전략산업은 산업조직의 차이를 반영하여 약간 색채가 다르다.

쌍방 모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자와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등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전자에 있어서 中型에 이르는 컴퓨터, 通信機器, 메모리半導體 등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대형 승용차까지, 기계산업에 있어서는 고급NC 工作機, 메카트로닉스와 같은 量產型, 汎用型 더우기 最終製品 指向이 여전히 강한 戰略産業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表 7 참조)

한편 대만의 경우는 電子에 있어서 半導體 재료와 센서, 컴퓨터 周邊機器와 프린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자동차부품, 기계산업에 있어서는 自販機와 재봉기, 組立工作機와 같이 多品種 少量生産型, 特殊型으로 部品·素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특징을 살린 産業選擇이라 할 수가 있다.

이들 選擇의 特性은 1970년대의 産業選擇으로

시작한 分岐가 1980년대에서는 한층 분명해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恩高하에서 진전되는 한국·대만으로부터의 일본의 海外調達을 보면 한국의 最終製品指向, 美日産業의 추격경향이 현재는 대만에 비해 産業調整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의 시정이라는 점에서는 總花的인 産業選擇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美日, 그리고 유럽기업

表 7 韓國·台灣의 戰略産業 有望品目

戰略産業	韓國의 有望·優先 商成品目의 例	台灣의 策略性 工業 品目의 例
機 械	〈一般機械〉 NC工作機, 放電加工機, 農業用트랙터, 自動染色機, 特殊乾式베어링, 汎用보일러 등 〈電氣機械〉 리니어電動機, EHV 등 變圧器, 真空掃除機 등 〈精密機械〉 카메라, 試驗計測器, 醫療機器, 自動制御機器 등	〈一般機械〉 스틸金型, 鑄造品製造, 트랙터, 冷媒컴프레서, 真空設備, 公害防止設備, 自販機, 工業用·컴퓨터附 재봉기, 産業用로봇, FMS 등 自動化裝置, 볼베어링, 油圧펌프 등 〈電氣機械〉 發電機, 모터, 變圧器, 엘리베이터, 電氣絶緣材料, 冷凍·空調設備 등 〈精密機械〉 精密測定用器具, 精密 기어, 精密工作機械 등
電 子	〈家庭用電子機器〉 컬러TV(高品位TV, 音聲多重化, 液晶컬러TV의 開發) VTR(8mm VTR), VDP 오디오機器(CD, DAD部品, 마이크로프로세서 內藏型 開發) 〈産業用電子機器〉 32bit 슈퍼마이컴, 컴퓨터 周邊機器(5 1/4인치 FDD의 國産化, 레이저인젝션프린터開發), CAD/CAM 등의 應用機器 通信機器(비디오디스크, VAN, LAN시스템, 光通信시스템, 衛星放送設備, 多機能팩시밀리 등), 醫療用 電子機器 〈電子部品·材料〉 大規模集積回路(1M DRAM 大量 生産)·注文型 게이트어레이·로직 半導體, 光素子, PCB, 센서 등	〈家庭用電子機器〉 디지털 컬러TV, 有線TV VTR, VDP 오디오機器, 電子울건, TV게임 〈情報電子工業〉 小型비즈니스컴퓨터, 英文데이터處理機, OEM 마이컴, 워드프로세서, 電子式레지스터, 端末機, 컴퓨터 周邊機器(디스크드라이브部品 등, 光學讀取裝置, 프린터헤드) 通信機器(레이다, 光通信, 디지털變換機, 팩시밀리, 텔레타이프, 衛星放送設備) 〈電子部品·材料〉 半導體材料(실리콘웨이퍼, 갈륨砒素웨이퍼 등), 集積回路(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IC用소드프레임, 精密스위치, 센서, 키보드, 튜너, 페라이트 코어 등
自動車	〈完成車〉 小型·中型乘用車, 小型트럭 〈自動車部品〉 엔진, 變速機, 클러치, 브레이크디스크, 懸架스프링, 噴射裝置, 始動모터	〈自動車部品〉 点火코일, 브레이크시스템(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등), 計器類(速度計, 타코미터 등), 엔진主要部品(카브레타, 크랭크샤프트 등), 트랜스미션시스템, 스테어링, 始動모터, 헤드라이트, 新型에너지절약엔진

資料: 「2000年으로 향하는 國家長期發展構想」(韓國産業研究院), 1985年 「策略性工業의 通用範圍」 「交流」各号

과의 관계深化의 과정에서 자연적인 선택이 일어날 것을 앞으로 기대한다.

최후에 엔高하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는 日本企業과 한국·대만의 分業展開를 생각할 때 中長期的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하나는 중공시장의 동향이다. 중공의 對外開放 進展狀況이 대만·한국과 美日의 水平分業關係에 미치는 impact는 中長期的으로는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 하나는 서로가 약간 다른 産業選擇이 한국

과 대만의 水平分業으로의 길을 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엔高하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資本財·中間財의 Cost up은 쌍방을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서로 輸入先 多辺化를 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산업에서 라이벌이라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으나 國際分業이라는 市場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수준까지 한국과 대만의 산업은 발전했으며 기업규모도 또한 컸다. 民族企業끼리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대표되는 바와 같이 美日 多国籍企業의 기업내 거래가 分業化를 加速化할 것이다.

表 8 韓國·台灣의 主要 産業 比較와 育成計劃

	現 狀	
	韓 國	台 灣
鐵 鋼	①粗鋼年産能力(84年) ②中小鐵工所數 ③建設工事計劃 光陽製鐵所工事中 87年完工時的 能力은1,570萬톤	500萬톤 約300 第1期第3段階工事中 88年完工時的 能力은 800萬톤
造 船	①造船能力(84年) ②造船実績 ③今後的 擴張計劃 ④輸出実績(85年) 403.5萬톤 (85年11月까지) 267萬톤 86年中에 548萬톤, 90年에는 800萬톤體制를 確立 50億弗	90萬 (84年) 53萬톤 特히없음. 甲板機械, 鐵構造物로 轉換中 1.6億弗
乘 用 車	①乘用車메이커數(86年) ②年間生産能力(86年) ③今後的 增強計劃 ④生産実績(85年) 輸出実績(85年) 3 68萬台 87年初에 134萬台, 90년까지 250萬台的 生産能力增強을 檢 討中 38萬台 12萬台	7 40萬台 85年3月 「自動車工業發展法案」을 發表 16萬台 0
電子工業	①輸出実績(84年) ②VLSI開發実績 ③TV輸出実績(85年) ④퍼스컴生産実績(85年) 컴퓨터製品輸出実績(85年) ⑤VTR生産実績(85年) 70億弗 85年 256KDRAM大量生産, 輸出開始 2.7億弗 122萬台 15.9億弗 139萬台	52億弗 86年필립社·交通部의 合作에 의한 256KDRAM量産이 출범 4.0億弗 86萬台 12.2億弗 —
機 械	①工作機械의 生産実績(85年) ②工作機主要機械輸出実績(85年) ③育成計劃 對日貿易赤字는正의 가장 重要한 것으로서 機械國産化는 86년중에 540品目이 발표되고 있다	97萬台 2億弗 「策略性工業」으로 指定하여, 特히 機械部品の 國産化에 注力하고 있다.
石油·化學	①나프타分解工場數, 에틸렌年産能力(84年) ②PVC生産実績(85年) 4 95.5萬톤 41.1萬톤	2 50.5萬톤 59.9萬톤